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 전산업무 개발-

정영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의 전산업무는 명의개서, 유가증권발행, 사고주권처리, 주식배당금지급, 유무상증자, 명의개서, 채권관리 및 이에 관련된 제반부수업무등 기업의 자금조달은 물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식시장의 후선작업을 주로 처리하는 업무로써 CYBER 시스템에 데이터 100을 연결하여 온 라인 배치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그후 KICO, KCC에서 일부 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며 한국증권전산(주)가 발족된 이후에는 이 기관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온라인 실시간 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KIST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후 IBM 4331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988년 증권호황기에 용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KIST의 NAS를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되었다.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전산업무 개발 초기에는 사무기장부문에 많은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개발완료 후에는 기장담당부서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인력절감효과를 보았으며 통일주권발행으로 OCR 판독기를 통해 사고주권의 온라인 검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주권관리가 용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한국증권대체결제(주)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개발초기만 하여도 전산실을 잘 꾸며 보겠다고 비닐장판을 깔고 맨발로 출입하도록 했었는데 프린터의 빈번한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자, 미국 본사의 엔지니어가 와서 여러 날을 고생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비닐장판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주범이었지만…
…

미국교육훈련 중 주권 OCR 관련 업무협의를 필요로 한다 하여 1개월 일찍 귀국하여 100만 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장비를 반납한 일도 있었으며 초기에는 배치처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홀라나 카드놀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시 정만영 부소장님이 순찰하시는 중에 담배연기가 뿌연 속에서 카드하던 상황이 발각되어 야단을 맞게 되었을때, 시스템이 다운이 되어 재작업할때까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함이었다고 일단 변명을 해놓았는데 그분이 직접 기계실에 가서 확인을 하셨을때 天佑神助랄까 마침 그때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었으니.....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서 IBM 4331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담당이사의 빈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신다는 성기수 박사님의 배려는 PI 중심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싶은 사안이다. 두차례에 걸친 노조파업으로 외부인원은 물론, 차량까지 출입이 통제되었을 때 KAIST쪽의 다람쥐길을 통해 작업결과물과 테이프를 운반하던 일 등은 추억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